

개막부터 화끈한 타격전...에프나인, 8대 7 ‘케네디 스코어’ 승리

◇무등리그 1라운드 전적

◆1경기(6회 시간 제한)

레드워리어스 0 0 5 1 0 1 7

에프나인 1 0 4 1 0 2 8

△승리투수:진성수

◆2경기(4회 콜드)

세한기업재규어스 1 0 7 2 10

안타처블 0 0 0 0 0

△승리투수:김용신

△홀런:김용신(1회 1점·세한기업재규어스)

◆3경기

신협레전드 0 0 0 0 1 0 1 2

페가수스 0 0 0 2 0 2 X 4

△승리투수:김상호

◆4경기

아이프렌즈 0 0 0 7 0 0 6 13

8312 FRIENDS 1 0 0 0 0 1 1 3

△승리투수:김남국

◆5경기(6회 시간 제한)

맘슈퍼라운베이스볼 2 0 0 2 2 0 6

파트너즈 0 0 0 3 3 3 9

△승리투수:조희진

△홀런:김종환(4회 1점·맘슈퍼라운베이스볼)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시생활체육회와 전남도생활체육회가 후원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가 6일 오전 무등리그 레드워리어스와 에프나인의 16강전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세한기업 재규어스 콜드게임 승

‘화끈한 타력’ 아이프렌즈

페가수스·파트너즈도 8강행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의 막이 올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6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레드 워리어스와 에프나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두 달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1주차 경기는 무등리그의 대결로 전개됐다. 대회 첫 승은 재역전극 끝에 에프나인이 가져갔다.

레드워리어스와 개막전을 치른 에프나인은 1-0으로 앞선 3회 대거 5실점을 하며 승기를 내렸지만 이어진 3회말 공격에서 5-5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4회 1실점을 하며 다시 승기를 내렸지만 6회 2점을 만회하면서, 8-7의 승리를 완성했다.

무등기 단골 손님인 세한기업 재규어스는 콜드 게임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재규어스는 1회 김용신의 솔로포로 선취점을 만든 뒤 3회 7점을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4회 2점을 보낸 재규어스는 10-0, 4회 콜드승을 만들었다. 솔로포의 주인공 김용신은 승리투수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페가수스도 승리팀에 이름을 올렸다. 신협레전드와 3경기에서 맞붙은 페가수스

는 2점을 먼저 뽑아낸 뒤 4-2, 2점차의 리드를 지키면서 8강 티켓을 확보했다.

아이프렌즈는 화끈한 화력을 과시하면서 8312 FRIENDS를 제압했다. 1회 선취점을 내주며 0-1로 끌려가던 아이프렌즈가 4회 대공세를 벌였다. 한번에 7점을 뽑아낸 아이프렌즈는 7회에도 6점을 만들며 13-3의 대승을 거뒀다.

무등리그 1라운드 마지막 승리팀은 파트너즈가 됐다. 파트너즈는 맘슈퍼라운베

이스볼과의 경기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9-6승리를 장식했다. 파트너즈는 0-4로 뒤진 4회 3점을 뽑으며 추격을 시작한 뒤 5-6회에도 연달아 3점씩을 수확하며 9-6으로 승리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남도생활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홈런 평평...마운드는 눈물 ‘평평’

이범호·백용환 홈런...유창식 4이닝 6실점 3:9 패

KIA, 주말 대구 원정 1승1패...삼성전 8승7패



KIA 타이거즈가 대구구장 마지막 원정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KIA가 6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15차전에서 3-9 패를 기록했다. 전날 호수비 열전과 오준혁의 강렬한 홈런 한방으로 4-0 영봉승을 거뒀던 KIA는 6일에는 삼성의 평평 수비와 홈런포에 올랐다.

2회까지는 KIA 유창식과 삼성 장원삼의 팽팽한 좌완 맞대결 양상이었다. 필과 나지완의 방망이가 헛도는 등 KIA 타자들이 장원삼의 기세에 막혀 1회에 이어 2회에도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이에 맞서는

유창식이 만만치 않았다. 1회 삼성의 테이볼 세트 박한이와 박해민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운 유창식이 2회에도 박석민을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6타자를 그대로 덕아웃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3회 1사에서 이흥련에게 첫 안타를 허용한 유창식이 김상수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다. 이어 1사 1·2루에서 박한이에게 던진 볼쪽 높은 직구가 담장을 넘어가면서 0-3이 됐다. 유창식이 박해민의 발에 추가점을 내줬다. 볼넷으로 나간 박해민이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내달렸고, 나바로의 중견수 플라이 때 홈에 들어오면서 0-4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유창식은 4회 이승엽·채태인·김상수에게 3개의 2루타를 내주는 등 4이닝 5피안타(1홈런) 2사자구 3탈삼진 6실점의 피칭을 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기싸움에서 밀린 KIA가 5회 홈런 두 방으로 반격에 들어갔다. 1사에서 이범호가 장원삼을 상대로 시즌 22호포를 쏘아올렸다. 이어진 2사 1루에서는 백용환이 장원삼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시즌 8포호를 날리며 3-6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전날 KIA 호수비 퍼레이드에 발이 묶였던 삼성이 중견수 박해민의 호수비로 승기를 굳혔다. 김원섭이 선두타자 안타로 걸어나간 6회 1사 1루에서 지명타자 김주찬이 중앙으로 큼직한 타구를 날렸다. 펜스를 직격할 것 같았던 타구를 중견수 박해민이 몸을 날려 낚아채면서 KIA의 추격 분위기가 꺾였다.

볼펜 싸움에서도 KIA가 밀렸다. 유창식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홍건희, 한승혁이 각각 연속 안타와 홈런으로 추가점을 내준 반면 8회 출격한 삼성 안지만이 삼진 세 개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삼성 마무리 임창용도 삼자범퇴로 9회를 정리했다.

한편 1승1패를 기록한 KIA는 8승7패로 삼성전 우위를 유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일 대구 시민야구장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KIA 타이거즈 경기 5회초 2사 1루에서 KIA 백용환이 투런홈런을 친 후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데뷔홈런·첫 승·첫 안타...“우리팀에 첫 번째가 많네”

덕아웃 **T** 특특

▲첫 번째가 많네요 = 5일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 앞서 8번 타자 겸 2루수로 윤완주가 선발 출장한다고 언급한 김기태 감독. 김민우의 체력 부담이 크고 윤완주의 타격감이 괜찮다는 설명이었다. 윤완주는 4일 롯데전에서 프로데뷔 홈런을 타트리며 팀의 영봉패를 막았다. 김 감독은 윤완주의 홈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올 시즌 우리팀에 첫 번째가 많네요”라고 웃었다. 올 시즌 KIA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총 55명. 첫 승, 첫 안타, 첫 홈런 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날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오준혁은 7회 심장민의 146km 직구를 받아 좌측 담장을 넘기며 프로데뷔 홈런을 기록했다. 선발로 나온 좌완 임기준은 5.1이닝 2피안타 2사자구 3

탈삼진 무실점으로 프로 첫 승을 신고했다.

▲이상하게 잘 치게 되더라고요 = 외야수 오준혁의 기본 좋은 징크스였다. 오준혁은 5일 2-0으로 박빙의 리드를 이어가던 7회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오준혁은 경기가 끝난 뒤 “(임)기준이 형과 경찰청에서 함께 뛰었는데 이상하게 기준이 형이 나오는 날이면 잘 쳤다. 오늘도 안타는 하나 칠 것 같았는데 홈런을 치게 됐다. 홈런타자가 아니라서 열렬하다”고 웃었다.

▲가방에 잘 넣어두었어요 = 표정관리가 안 되는 승리투수였다. 임기준은 5일 경기에서 프로 첫 승을 거뒀다. 올 시즌 김기태 감독이 선발 자원으로 꼭 집어 두었던 임기준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1·2군을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동안 감독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죄송한 마음이었다. 차분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다”고 소감을 밝혔던 임기준은 6일 “(첫

승 공) 가방에 잘 넣어두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알고 보니 5번째더군요 = ‘국민 타자’ 이승엽의 인기는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6일 필은 스티븐슨과 함께 삼성 라커룸을 찾았다. 이승엽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필은 “이승엽은 힘과 기술이 뛰어난 정말 좋은 타자다”며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통역 담당 프린트는 “스티븐슨이 얼마 전 이승엽의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 필도 이승엽의 유니폼을 받을 수 있는나고, 안 된다면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삼성 프런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주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린드블럼 등 다른 외국인 선수가 선점을 했더라. 필이 5번째였다”고 웃었다. 한편 이승엽은 6일 4회 1사에서 유창식을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디트리면서 프로야구 통산 2번째 200루타 기록을 작성했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대구구장 마지막 날

내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시대 앞두고 KIA 원정 최종전...감독·선수 감회에 젖어

‘호랑이 군단’이 대구구장에서 마지막 추억을 남겼다.

KIA 타이거즈는 6일 대구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15차전을 치렀다. 오는 10월1일 삼성과의 최종전을 안방에서 갖는 KIA에게는 올 시즌 마지막 대구원정. 내년 시즌 삼성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새출발을 하게 되면서 프로야구 34년의 역사가 담긴 대구구장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다.

5일 대구로 걸음을 한 김기태 감독은 “내일이 마지막이니 기념 사진을 찍어 야했다. 3년의 시간 이곳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다”고 언급했다.

1991년 쌍방울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밝은 김 감독은 1999년 삼성으로 이적한 뒤 2000·2001년을 대구에서

보냈다. 김 감독은 6일 조계천 수석코치 등과 대구구장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남겼다.

조 수석코치는 6일 “예전에는 이곳 외야가 언덕이었다. 오늘이 대구구장에서의 역사적인 마지막날이다”며 추억의 구장을 둘러보았다.

대구출신의 내야수 이범호에게도 남다른 감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범호는 “어린 시절에는 꿈의 구장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곳에 경기를 하러 왔었다. 그때는 그렇게 경기가 좋아보일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는 야구 잘해서 대구구장 라커룸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며 “좋은 경기장으로 옮긴다고 하니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시원스럽다”고 언급했다.

대구구장은 대구의 불멸과 열기를 그대로 머금은 인조잔디 탓에 한여름 무더위로 악명이 높던 곳이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4연패가 이뤄진 영광의 무대이기도 했다. 한국시리즈의 또 다른 씁쓸한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6년 10월22일 한국시리즈 3차전이 끝난 뒤 삼성의 패배에 화가 난 일부 팬이 해태의 버스에 불을 지른 ‘해태 버스 방화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대구구장이다.

한편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라이온즈파크는 국내 최초의 8각형 야구장이다. 1666억원이 투입된 신축구장은 2만 4300석(최대수용 2만9000명)규모이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방형 통로(concourse)로 지어졌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